

사학법 재개정 종교 단체간 갈등으로 비화

“개방형 이사 안 없애면 종단사학 폐교”

보수 성향 기독교 단체인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와 한국교회연합교단장협의회, 가톨릭학교법인연합회 관계자들은 1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개정 사학법의 핵심인 ‘개방형이사제’를 폐지하지 않을 경우 종단 산하 사학들을 폐교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진보적 종교단체들은 사립학교법 재개정을 요구하는 보수 종교단체들을 비판하고 나서 사학법 재개정 문제가 종교 내부간 갈등으로 비화되고 있다.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사학 건학이념 구현과 종교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는 ‘개방형이사제’ 등을 제거해줄 것을 국회에 다시 촉구한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개방형 이사를 선임하지 않고 임시이사(관선이사)도 거부하며 학교 폐쇄를 불사하겠다”고 말했다.

박종순 한기총 회장은 “사학법은 한국기독교 1천200만 성도를 괴롭히는 법”이라며 “단순해서 정치는 잘 모르지만 교회는 사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박 홍 가톨릭학교법인연합회 부회장은 “빈익빈 부익부의 문제가 있다고 해서 사유

진보종교단체 “기득권 위해 국민 협박 말라” 비판



박홍 서강대 재단이사장이 기독교·천주교 회장단과 함께 19일 오전 개정 사립학교법 재개정을 촉구하기 위해 국회 열린우리당 원내표실을 방문, 면담이 무산되자 “열린우리당은 단한 당”이라며 항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재산제를 없애자는 게 공산주의”라고 말했다.

앞서 이들은 국회에서 한나라당 김형오 원

내대표를 만나 사학법 재개정을 함께 결의한 뒤 열린우리당 영등포당사를 방문했으나 회의중이던 김한길 원내대표를 만나지 못했다

다. 박 홍(朴 弘) 부회장은 김 원내대표와의 면담에서 “열린우리당이 사학법 개정을 잘못된 것을 보면 사라져야 할 정당”이라고 말했다고 나경원 대변인이 전했다.

반면 진보적 종교단체인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 전국목회자정의평화실천협의회, 실천불교전국승가회 등 7개 단체는 ‘종교의 이름으로 더 이상 사립학교법을 흔들지 말라’는 제목의 성명서에서 “국민의 삶을 위로하고 정신적인 안식처를 제공해야 할 종교 단체들이 사립학교의 기득권을 챙기기 위해 사법과 단속 등으로 국회를 협박하고 국민을 협박하는 것은 종교 본연의 모습과 거리가 멀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윤을 창출하기 위한 기업도 투명하고 민주적인 운영을 위해 사외이사를 두도록 법으로 정해 놓고 있는 실정에서 교육의 공공성을 보장하기 위해 도입한 사립학교의 개방형 이사제는 낯익지만 당연하고 환영할 일”이라며 “특정한 소수의 기득권 유지자를 위해 국민의 교육권을 침해하지 말라”고 주장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적외선 이용 산불·홍수 탐지 열추적 인공위성 2012년 쏘는다”

국가우주위원회, ‘아리랑 3A호’ 개발 계획

적외선(IR) 카메라를 이용해 산불을 탐지하고 홍수피해 및 여름철 ‘열섬현상’을 분석할 수 있는 최첨단 인공위성이 오는 2012년께 발사된다.

국가 우주개발 정책의 최고 심의 기구인 국가우주위원회(위원장 과거 부총리)는 19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첫 회의를 열어 이같은 계획을 갖춘 ‘다목적 실용위성(일명 아리랑) 3A호’ 개발 계획안을 심의했다.

계획안에 따르면 아리랑 3A호는 2009년 발사 예정인 아리랑 3호의 후속 위성으로, 아리랑 3호에 장착되는 70cm급 해상도의 광학카메라(MSC)에 열 추적을 통해 물체를 식별, 촬영할 수 있는 적외선 채널을 추가할 예정이다.

적외선 채널을 추가하게 되면 아리랑 3호의 높은 해상도(흑백영상 70cm급)를 구현하면서도 지상의 산불을 탐지할 수 있고 홍수 피해나 여름철 열섬현상을 분석할 수 있으며 기업체 등의 온·폐수 방류나 화산활동 등

도 감지할 수 있게 된다. 특히 열 추적을 통해 지상에서 시동을 거는 차량이나 항공기의 이·착륙 등도 탐지할 수 있어 군사 용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과학기술부는 아리랑 3A호 개발에 총 2천120억원을 투입, 우선 2009년 까지 적외선 센서 분야의 핵심기술을 개발한 뒤 이후 적외선 카메라 등 탑재체를 국내 주도로 개발할 계획이다.

지구상공 450~890km의 저궤도에 발사되는 아리랑 3A호는 무게 1천kg에 수명은 4년으로 설계되며, 해상도는 흑백영상의 경우 70cm급, 적외선 영상은 7m급에 관측폭은 16.8km로 개발될 예정이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1999년 발사한 아리랑 1호, 지난 7월 발사된 아리랑 2호에 이어 2008년 아리랑 5호, 2009년 아리랑 3호, 2012년 아리랑 3A호 순으로 다목적 실용위성을 발사하게 된다.

/연합뉴스

“북핵문제 해결 최적시기 놓쳤다”

이종석 前통일부 장관 광주 강연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은 19일 “북·미 양국은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최적시기를 이미 놓쳤다”고 말했다.

이 전 장관은 이날 오후 광주 5·18 기념문화관에서 열린 전남대 5·18 연구소 설립 10주년 기념 강연(사진)에서 이같이 밝히고 “북·미 양국은 ‘타격태격’한 감정적 협상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전 장관은 “북한이 핵실험을 했는지 여부에 따라 국제사회의 (핵 포기에 대한) 보상내용이 달라지지는 않는다”며 “북한은 미사일 발사 움직임을 보여 국제사회의 이목을 집중시켰을 때 미사일 발사를 중단하고 6자회담에 복귀했어야 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북한은 핵실험으로 미국을 회담장에 끌어들이지 못했을 지 모르지만 이미지와 공신력이 추락하는 결과를 낳았고 미국도 탄력성과 유연성이 결여된 대응으로 최적의 기회



를 놓쳐 결국 값비싼 대가를 치르게 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북 포용정책이 핵실험에 미친 영향과 관련, “대북정책은 기본적으로 양자관계의 문제지만 북핵문제는 북한, 미국은 물론, 일본·러시아·중국 등 다자가 변수로 작용했다”며

“북한이 핵실험을 한 사실이 능력 밖의 일이었다 하더라도 당시 국정 담당자로서 국민에게 송구스럽기는 하지만 포용정책을 핵실험의 이유로 대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항변했다.

그는 이어 “북한은 핵 포기에 대한 확실한 약속을 하고 국제 사회는 이에 상응하는 과감한 보상을 약속해야 한다”며 “그러나 합의 후 약속을 위반하면 북한의 미래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할 정도의 강력한 대응조치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김정일 ‘위기의 주부들’ 나홀로 시청

(美 ABC 방송 인기 드라마)

타임 손버그 기자, DVD 개인 시청용으로 북한에 유입

미국 시사 주간 타임의 네이션 손버그 기자는 18일 CNN에 출연, ABC 드라마인 ‘위기의 주부들’ DVD가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개인 시청용으로 북한에 유입되고 있다고 말했다.

손버그 기자는 이날 리처드 스텐글 편집국장 등과 함께 타임이 2006년 ‘올해의 인물’로 인터넷 혁명을 주도한 평범한 시민들인 ‘당신’(You)을 선정한 배경을 설명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타임은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뉴스와 일반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인물을 ‘올해의 인물’로 선정, 논란을 빚기도 했으며, 올해의 경우 미사일 발사, 핵실험을 감행한 김 위원장, 미국 등의 반대에도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을 강행중인 마무드 아마디네자드 이란 대통령, 주민 학살과 관련해 사형 선고를 받은 사담 후세인 전 이라크 대통령, 이라크연구그룹(IGS)을 주도한 제임스 베이커 전 미국 국무 장관 등을 후보로 올렸었다.

스텐글 편집국장은 “많은 사람이 김 위원장과 핵확산을 올해의 인물로 추천했었다”면서 “김 위원장은 갑작스런 핵실험으로 세계 핵 균형을 변화를 가져왔다”고 설명했다.

이에 손버그 기자는 “김 위원장은 선글라스와 헤어스타일, 미국 대중 문화 애호가로도 명성이 있었다”면서 “‘위기의 주부들’ DVD가 그의 개인 시청용으로 북한에 유입되고 있다는 얘기도 있다”고 소개했다.

/연합뉴스

한·일 협상 日측 외교문서 공개 소송 제기

일본 정부가 한·일 국교정상화 협상 당시의 외교 문서를 공개하지 않는 것은 위법이라며 공개를 촉구하는 소송이 한·일 양국 원고단에 의해 18일 일본 도쿄지방법원에 제기됐다.

원고단은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전 후보상 청구 소송을 낸 군내위안부

출신 등 한국인 3명과 한·일 협상의 연구자 등 일본인 7명으로 구성됐다.

원고측은 지난 4월 일본 정부에 대해 1951년부터 65년까지 한·일 협상 의사록 등의 정보 공개를 청구했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일부 의사록에

대해 회의 일시와 참석자에 관한 정보만을 공개했을 뿐 실질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공표할 경우 교섭상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공개를 거부했다. 한국에서는 지난해 한·일 협상의 외교문서가 전면적으로 공개된 바 있다. /연합뉴스

Advertisement for LG Chemical featuring the slogan 'GOOD START GREAT SUCCESS' and '당신의 큰 성공을 돕겠습니다' (We will help your big success). The ad includes a heart-shaped graphic made of Korean characters and icons, and the LG Chemical logo.